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윤 혜 미

(충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이 인지한 가정의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였다. 자료는 C도에 거주하는 12세-15세의 아동 1,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최종적으로 1,115부를 통계분석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일반적 특성은 아동의 성, 학년과 성격이 대표적이었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 스트레스는 적응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이는 내·외현화 문제행동에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경제적 곤란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에서도 남아의 경우 모든 적응문제에 스트레스 변인과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공격성, 비행 및 불안·우울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서 연구·개발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아동의 적응, 문제행동, 학교적응, 경제적 곤란,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1. 연구필요성과 목적

적응은 개인이 일생동안 생존과 성장, 생산적 기능들을 충족하기 위해 그의 환경과의 적합성 (goodness of fit)을 성취하려는 적극적 노력이다. 아동기의 적응은 전 생애적 발달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성공적인 적응은 성인기의 대인관계, 정서, 직업생활 등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 반면 아동기에 부적응이 발생하면 대개 학습장애와 정서장애로 이어지고 후기 아동기에 이르러서는 비행을 포함한 일탈문제로 발전하는 등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춘기로 진입하는 연령대 아동은 유아기나 후기 청소년기에 비해 적응의 과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B00370).

취약한 집단에 속할 때 부적응의 문제를 보다 많이 겪을 확률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계층과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에 따른 빈곤가족의 증가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현상을 겪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일차적 피해자로 아동이 떠오르고 있다. 아동의 피해는 결정적이어서 일차적으로는 적응의 문제를 겪게 된다. 가정의 경제적 곤란은 그 자체가 아동의 의식주와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저하시켜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기도 하고 한편 가족갈등을 가져와 이혼이나 별거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응에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빈곤감이나 빈곤으로 인한 가족갈등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부적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동의 적응은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기능적인지 혹은 얼마나 역기능적인지로 논의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아동의 적응을 발달과정과 연관시켜 적응을 역기능적인 문제행동의 정도로 보거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으로 보아 원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자들은 가족을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 부부간의 갈등(Tschann, 1989; Brody et al, 1996; Davies and Cummings, 1994; Long et al, 1988; 권영옥·이정덕, 1999) 가족기능(전연진, 2002; 한미현, 1996), 부모의 양육태도(Rutter, 1985a, 1985b; Taylor, 1991, Long et al., 1988; 김광웅·이미애, 1995) 어머니의 우울(Cummings and Davies, 1994; Anderson and Hammen, 1983; 이삼연, 2000) 등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인성적 요인 또는 개인적 요인과 같은 아동 개인의 특성도 연구되었는데 친밀성·사회적 반응성·외향성으로 구분되는 인성(Eyessenck and Eyessenck, 1975; Peplau and Perlman, 1982), 자존감과 유아의 기질(Bates, 1990; Fox, 1994; 어주경, 1998) 등이 그것이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사회적 지위, 학교적응과 또래동조성(Lynch and Cicchetti, 1997; Rutter, 1985a, 1985b; Sylva, 1994; 박현선, 1998; 이은희, 2003) 등이 연구되고 있다. 위 연구결과들은 유아기에서 아동기초기의 적응은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반면 그 이후에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Belsky, 1984; Dadds and Powell, 1991; Fincham and Osborne, 1994). 또래동조성이나 인성 등은 좀더 나이 든 청소년과 관련이 있으며 자존감은 독립변수보다는 매개변수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어머니의 우울은 심리적 적응만을 다룰 때 보다 설명력이 크다. 사춘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가족환경과 사회환경으로 나뉘어져, 가족환경은 주로 가족관계와 관련된 갈등, 가족의 융통성과 응집성, 의사소통 등으로 구체화되고(전연진, 2002; 정나영·이정숙, 1999) 사회환경은 사회경제적 계층, 지역사회와 문화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Han, 2003).

본 연구는 아동의 적응을 심리·행동·사회적 측면의 내면적·외면적 적응으로 보아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심리·행동적 적응을 측정하고 학교적응으로 사회적 측면의 적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환경으로서의 가족갈등, 사회환경으로서의 경제적 곤란을 선택하였다. 아동의 적응 관련요인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는 아동이 인식한 경제적 곤란 및 가족갈등과 관련된 아동의 스트레스의 설명력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제규모보다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빈곤가족 아동의 적응을 다룰 때 '월수입'이라는 설문문항에 의존함으로써 정확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는 소수의 특수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근로빈곤계층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는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둔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인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다. 아동의 경우 대처방식이 적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다면 아동 특유의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식의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아동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대처방식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동기의 대처방식 유형이 연령이나 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절한 대처방식의 개발과 교육방향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12세-15세의 학령기 아동인데 이 연령대의 아동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또래와의 상황비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적응 행동이 발생되기 쉽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느 정도 습득된 시기이기 때문이다(Ayers, 1996). 이 연령대는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라는 차이로 인해 공유하고 있는 사춘기적 특성이 무시된 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양분되어 다른 집단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 영양상태의 호전과 급속한 정보화 등으로 사춘기가 앞당겨지면서 이들의 발달과제나 고민의 공통성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적응 중 문제 행동은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남녀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Roy et al., 2000; Bender et al., 1997; 전연진, 2002; 한미현, 1996).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적응(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은 성에 따라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적응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적응은 사회의 요구와 질서에 소극적으

로 순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적응의 과정은 전생애에 걸쳐 부과되지만 아동기의 적응은 개인의 일생에 걸친 적응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아동기의 적응이 순조롭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Leathers, 2000) 성장과 성취에 장애가 되므로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신혜령(2001)은 청소년의 외면적 적응문제와 내면적 적응문제가 청소년의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면적 적응과 공격성·비행과 같은 외면적 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Roy et al., 2000; Bender, et al., 1997; 주소희, 2003; 김혜선, 2004; 노충래·허지인, 2003; 김혜련·최윤정, 2003; 이상균, 2003; 정선욱, 2002, 신혜령, 2001; 노혜련 외, 1997). 아동청소년의 적응개념으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첸바크와 에델브룩(Achenbach and Edelbrock, 1981)의 문제행동 개념이다. 이들은 개인이 건전한 적응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보인다고 하고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적응상의 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재화 문제(내면적 부적응)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 등 주로 정서적 영역에서의 적응문제를 말한다. 외현화 문제(외면적 부적응)는 공격적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주로 행동적 영역에서의 적응문제를 말한다.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생빈도와 분포,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유형이 다르고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문제행동의 발생 비율을 보이며, 문제행동의 양상도 차이를 보여 남아의 문제행동은 주로 과잉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현적인 문제행동이며, 여아는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Roy et al., 2000; Bender et al., 1997; 한미현, 1996). 전연진(2002)도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과 비행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동청소년 적응의 또 다른 단면인 사회적 측면은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학교적응을 빼놓을 수 없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은 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생활의 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적응이란 학업성취와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하나의 사회로서의 학교규범과 규칙에 대한 순응정도를 통합적으로 말한다(박현선, 1998). 래드(Ladd, 1996)는 학교적응을 학교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고,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해하며, 성취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적응의 각 영역은 이후의 아동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서와 행동적응 뿐 아니라 학교적응 또한 아동의 적응의 주요한 단면으로 보고 있다(Lynch and Cicchetti, 1997; Rutter, 1985a, 1985b; Sylva, 1994; 박현선, 1998; 이은희, 2003).

2)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가족요인 중 가족갈등과 사회환경요인

으로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어떤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1)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86)는 빈곤이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환경적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의 경제적 곤란은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빈곤생활에서 오는 부모의 무기력, 무능력, 음주벽 또는 생활의 무질서 등 빈곤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맥로이드(McLoyd, 1998)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빈곤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범주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의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이라든가(Conger, Ge, Elder, Lorenz and Simons, 1994), 부모간 갈등, 그리고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의 열악성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의 아동은 사회의 윤택한 환경과 가정의 빈곤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유희에 쉽게 동화되며 동년배의 다른 아동과 비교하여 항상 열등의식, 긴장, 갈등에 사로잡혀 성격이 날카로워지며, 항상 불만이 차 있게 되고 부모에게 반항적이기도 쉽다(김재엽·이익섭·박수경, 1998). 학년이 어릴수록, 주거환경 및 사회심리적 환경이 유해할수록 가족의 지지가 적고, 가족갈등이 심할 경우 아동의 사회적 역기능 정도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경은, 2001).

아동 스스로 빈곤을 지각하거나 그들의 부모가 빈곤으로 인한 갈등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였다면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부모가 경제적 곤란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비사회적 행동과 같은 증상을 포함한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빈곤의 경험은 아동의 지적 능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친구관계, 학교에서 품행문제,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빈곤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며 특히 남아에게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여아에게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Lynch and Cicchetti, 1997; Rutter, 1985a, 1985b; Sylva, 1994; 박현선, 1998; 이은희, 2003).

또 학교적응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양육행동과 같이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 적응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제적 빈곤과 같은 물리적 조건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낮은 경제적 소득으로 인한 긴장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의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 등 심리적 과정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심리적 부담감을 더 심하게 느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 제공에 있어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인다(김영희, 1996; McLoyd, 1990; Vandell and Ramanan, 1991). 따라서 자녀의 학업 활동 및 학교생활을 적절히 지도하거나 관리하는데 소홀하기 쉬워 전반적인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부적응은 가족환경의 역동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행동 증상은 순환적 인과관계로 발생되며 가족 하위체계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은 다른 어떤 상호작용보다 적응에 큰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아동의 부적응을 가족맥락 속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족갈등은 유력한 설명변수라고 할 수 있다(Davies and Cummings, 1994). 가정에서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간에 화합이 안될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증가한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유성경, 2000; 정유미·김득성, 1998; 어주경, 1998)에서 일관성있게 지적되고 있다. 유성경(2000)은 가족환경요인이 아동의 부적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족갈등이 특히 아동에게는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아동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Margolin, 1998). 아동에게 있어 부모간의 갈등은 가장 심각하고 강력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갈등이 심한 가족환경에 처한 아동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상의 갈등, 학업문제를 일으켜 부적응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Barber and Erickson, 2001). 웹스터-스트레튼(Webster-Stratton, 1989)은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가족관계 및 부정적인 훈육방식이 증가하게 되어,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자녀행동 또한 두드러지게 된다고 보고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으로서 가족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관계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 공격성향의 강도가 점점 커지게 되어, 적절한 표적이 나타났을 경우 그에 대한 공격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현선, 1997). 즉, 지속적 관계인 가족관계 내에서 아동이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문제행동이 커진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태도나 부모의 거절은 낮은 학업성취나 지적인 활동의 부진, 부족한 사회적 관계형성 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Weiner, 1970),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신용주, 2003).

빈곤가족은 가족갈등도 비 빈곤가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schann et al., 1989; 권영옥·이정덕, 1999). 보이다노프와 도넬리(Voydanoff and Donnelly, 1988)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을 가족간의 갈등에 보다 많이 노출시키게 된다고도 지적하였으며 경제적 곤란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Elder and Caspi, 198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Conger et al, 1994) 부모간 갈등의 정도와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간 갈등의 정도는 현재의 경제적 곤란과 청소년 적응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아동의 적응

아동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곤란이 아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되, 비슷한 조건에서도 아동의 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데 이 때 이들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들은 간혹 사회적 지지나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다루고는 있으나(김만지, 2002; 어주경, 1998) 아동의 스트레스가 적응과 연관될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완충효과 가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요인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이경주, 1997).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인의 경우 적응 및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스트레스 유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켜 문제행동 유발을 억제하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밝혀져 있다(이춘재, 1998).

외국연구의 경우 스트레스와 대처이론이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청소년 적응 간의 연관을 이해하게 해 주는 잠재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Compas et al., 2001). 즉 아동이 사용하는 상이한 대처유형의 구성내용이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원과 결과적인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세 미만의 유아들조차 부모의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Dunn, 1994). 그러나 아동의 대처능력의 차이로 인해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아동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습득하였다면 빠른 적응을 보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식을 습득하였다면 철수나 공격행동 등 미성숙하고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 등이야말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두 가지 요인인데 청소년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스트레스원과 결과적인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이같은 효과가 아동에게서도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과 달리 아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연구되고 있을 뿐 아동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의 대처방식은 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 대처방식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체득되는 학습된 자기관리행동이므로 성장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게는 아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초기 이론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인 대상 이론을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동이 사용하는 다수의 대처방식이 성인의 대처방식 범주로 분류되지 않으며(Band and Weisz, 1988; Causey and Dubow, 1992) 성인에게는 적응적이지 못한 회피행동이 아동에게는 적응적인 대처방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Kliewer, 1991). 에이어스(Ayers, 1991)는 아동의 대처방식을 기존의 성인관련 대처방식처럼 이원화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요인분석을 통해 ①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처방식, ② 스트레스 사건에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없는 구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관심 전환적 대처방식, ③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회피적 대처방식 그리고 ④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을 타인에게서 찾는 지지 추구적 대처방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외, 청소년 대상의 대처척도는 알바(Alva, 1989)의 YCS(Youth coping scale)가 문제해결시 계획성, 책임성, 통제성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있으나 주로 학교영역이 대상이고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민하영·유인진, 1998; 정원주·윤종희, 1997)들이 진행되면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가 별도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대처방식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아동이 환경적 맥락 중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보이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민하영·

유안진의 척도와 정원주·윤중희의 척도를 검토, 수정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회피적 대처방식', '공격적 대처방식',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4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대처방식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며, 소극·회피적 대처방식은 문제에 의해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유보·수정하고 문제해결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인지행동적 반응이다. 그리고 공격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반응으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방식은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표집

충청북도내 3개 시와 3개 군의 12-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과 학년을 고려하여 1,200명을 표집하였다. 12-15세는 사춘기로 성적인 변화와 함께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정을 벗어나려는 심리적 이유(離乳)의 시기로서 정서적으로는 어린이식 표현형식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심과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오는 시기로서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 이들은 십대후반의 청소년보다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높아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가족 갈등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인적인 스트레스 적응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그 유형이 행동에 일관성을 띠는 시기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미 과거 중학생 수준의 신체적 성적 성숙에 도달하고 가속되는 정보화에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대학입시라는 단일한 목표로 관심이 수렴되면서 개입이 필요한 부적응의 문제도 비교적 단순해진 것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조주영, 2004).

빈곤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일정수 확보하기 위해 시, 군지역의 빈곤층 집중거주지역(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학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통해 파악한 모자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과 영세가정의 아동이 500명 포함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표집된 학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과 접촉하여 협조를 구하여 배포, 기입 후 수거하였다.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0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2004년 6월 15일~2004년 6월 25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실시하고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을 제외, 최종 1,159부를 분석했다.

2) 조사도구

(1)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 스트레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SQ 1(The Responses to Stress Questionnaire, Connor-Smith et al., 2000)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상이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RSQ에 답하게 되는데, 청소년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설문에 묘사된 여덟 가지 빈곤관련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는지 물어 본다. 모두 8개 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RSQ 2의 8개 문항으로 지난 6개월간 빈곤과 관련된 가족갈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묻는다. 역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한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와 정원주와 윤종희(1997)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문항씩 총 20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4)의 4점 평정 척도로 평가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81이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공격적 대처행동 .85, 적극적 대처행동 .87, 지지추구적 대처행동 .78,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64이다.

(3) 적응: 적응은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의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우선 문제행동은 아동이 자기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개인적 적응으로서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을 측정하는 YSR(The Youth Self Report, Achenbach, 1991)을 토대로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8)등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K-YSR 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기존의 연구에서 증명된 112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크게 나뉘며 하위척도로는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비행,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등 8가지이다. 본 연구는 8가지 하위척도들 중에서 외현화 문제로 비행과 공격성 2개의 하위 척도와 내재화 문제로 위축, 불안·우울 2개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공격성은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등 공격적 행동 성향으로 정의하며 비행은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성향으로 정의한다. 불안·우울은 불안이나 긴장, 초조, 걱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위축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행동 성향으로 정의한다. 아켄바크의 문제행동 8개면인 중 4개를 선택한 것은 대상의 연령을 볼 때 이들에게서는 유아기와 달리 신체증상이나 과잉행동, 미성숙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며 정신분열증은 이미 임상적 범주로 분류되는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얼마나 자주 각 문항에 묘사된 행동을 하는지를 3점 Likert 척도를 이용해 답하게 되어 있다.

학교적응은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1이다. 학교적응 유연성의 하위요인으로는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정도를 측정하는 학교에 대한 흥미 7문항과,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 등을 측정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5문항, 그리고 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 규범 준수, 또래간 싸움, 권닝, 지각, 정학이나 근신과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등의 경험을 측정하는 학교규범 준수 1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이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70, .68, .77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처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실시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빈곤, 가족갈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과,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에 따라 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공선성 제거를 위해 centering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아동이 54.3%, 여자아동은 45.7%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51.0% 중학생은 49.0%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양친부모가정이 81.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정도 12.7%, 소년소녀가정도 5.1%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보면 아버지는 고졸이 48.2%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28.8%로 두 번째이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이 62.4%, 대졸이상은 18.1%에 머물러 부모의 학력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623(54.3)	종교	불교	245(21.5)
	여	525(45.7)		기독교	351(30.8)
	합계	1148(100.0)		천주교	122(10.7)
학년	초등학생	591(51.0)		종교없음	362(31.8)
	중학생	568(49.0)		기타	59(5.2)
	합계	1159(100.0)		합계	1139(100.0)
부연령	35세 이하	29(2.8)	가족 형태	양친부모가정	886(81.1)
	36-40세	216(21.1)		한부모가정	139(12.7)
	41-45세	519(50.6)		소년소녀가정	56(5.1)
	46-50세	214(20.9)		기타	12(1.1)
	51세 이상	48(4.7)		합계	1093(100.0)
	합계	1026(100.0)	만남 횟수	1주일에 2-3회	48(23.5)
모연령	35세 이하	112(11.0)		월 2-3회	40(19.6)
	36-40세	438(43.0)		1년에 2-3회	26(12.7)
	41-45세	368(36.1)		거의 안만난다	90(44.1)
	46세 이상	100(9.8)	합계	204(100.0)	
	합계	1018(100.0)	부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74(16.7)
부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64(15.8)		고등학교졸업	650(62.4)
	고등학교졸업	499(48.2)		대학교졸업	188(18.1)
	대학교졸업	298(28.8)		(전문대포함)	29(2.8)
	대학원이상	74(7.1)		합계	1041(100.0)
	합계	1035(100.0)	부직업	농업/임업/어업	84(8.3)
부직업	농업/임업/어업	135(13.4)		자영업	151(14.8)
	자영업	199(19.8)		생산/기술/서비스업	100(9.8)
	생산/기술/서비스업	169(16.8)		사무직	118(11.6)
	사무직	231(22.9)		전문/관리/공무원	62(6.1)
	전문/관리/공무원	138(13.7)		전업주부	343(33.7)
	기타	135(13.4)		기타	159(15.6)
	합계	1007(100.0)		합계	1017(100.0)

1)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적응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4가지 모두가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공격성은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F=10.18, p<.001$) 조사대상 아동의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아

동의 공격성 정도가 중이나 상에 속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행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성적과 학년으로 역시 성적이 낮은 집단의 비행정도가 높았고($F=15.08, p<.001$),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F=-5.01, p<.001$)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인 위축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성적, 학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으로 비교적 광범위한데, 우선 아동자신과 관련해서는 남아보다는 여아가($F=-3.02, p<.01$),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F=2.92, p<.01$), 성적이 낮은 집단이 중이나 상에 속하는 집단보다($F=14.26, p<.001$) 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우울은 성별, 학년, 성적이라는 본인관련변인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아보다 여아가($F=-2.68, p<.01$),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F=-2.04, p<.05$), 그리고 성적이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F=10.63, p<.001$) 심한 불안·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학년이나 성보다는 성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현화·내재화 문제에서 성적이 공통적으로 문제행동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입경쟁이 하위학년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적이 아동개인에 대한 평가의 전반적인 잣대가 됨으로써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올리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문제행동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적응은 학년, 성적 외 부모의 연령과 모의 학력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적이 좋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 학교적응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하위권인 중학생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모두에서 가족유형(양친가족,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특성은 가족유형이 아니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지도감독의 부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등으로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표 2〉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N	M(SD)	F
외현화 문제 행동	공격성	성적	상	235	1.51(.28)/a	10.18***
			중	470	1.50(.26)/a	
			하	400	1.58(.30)/b	
	비행	학년	초등학생	591	1.24(.19)	-5.01***
			중학생	567	1.30(.25)	
		성적	상	235	1.24(.22)/a	
		중	470	1.24(.20)/a	15.08***	
		하	400	1.32(.24)/b		
내재화 문제 행동	위축	성별	남	622		1.52(.39)
			여	525	1.59(.38)	
		학년	초등학생	591	1.52(.38)	-2.92**
			중학생	567	1.59(.39)	
		모연령	35세 이하	112	1.60(.42)/a	
		36-40세	438	1.52(.37)/ab		
			41-45세	368	1.58(.40)/ab	2.98*
			46세 이상	100	1.50(.33)/b	
	모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74	1.64(.39)/a	3.96**	
		고등학교 졸업	650	1.53(.38)/ab		
		대학교졸업(전문대 포함)	188	1.54(.37)/ab		
		대학원 이상	29	1.51(.47)/b		
	성적	상	235	1.48(.39)/a	14.26***	
		중	470	1.52(.37)/a		
		하	400	1.63(.41)/b		
불안 /우울	성별	남	622	1.55(.36)	-2.68**	
		여	525	1.61(.37)		
	학년	초등학생	591	1.55(.37)	-2.04*	
		중학생	567	1.60(.36)		
	성적	상	235	1.53(.37)/a		
	중	470	1.54(.35)/a	10.63***		
	하	400	1.64(.38)/b			
학교 적응	학년	초등학생	590	2.99(.38)	29.55***	
		중학생	567	2.34(.36)		
	부연령	35세 이하	29	2.82(.40)/a	5.37***	
		36-40세	216	2.78(.50)/ab		
		41-45세	519	2.64(.48)/bc		
		46-50세	213	2.61(.51)/bc		
		51세 이상	48	2.54(.43)/c		
	모연령	35세 이하	112	2.84(.41)/a	6.76***	
		36-40세	437	2.65(.50)/b		
		41-45세	368	2.60(.49)/b		
		46세 이상	100	2.68(.48)/b		
모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74	2.58(.45)	3.12*		
	고등학교 졸업	649	2.65(.49)			
	대학교졸업(전문대 포함)	188	2.74(.48)			
	대학원 이상	29	2.63(.56)			
성적	상	234	2.93(.53)/a	87.37***		
	중	470	2.71(.46)/b			
	하	400	2.45(.39)/c			

*** p<.001, ** p<.01, * p<.05

2) 경제적 곤란, 가족갈등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성에 따라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빈곤감, 가족갈등, 대처방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조사대상자의 실시하였는데 먼저 독립변수간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표 3〉). VIF는 1.145에서 4.291로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문제 행동				학교 적응	더미 학년	성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방식					
		공격성	비행	위축	불안 우울			더미1	더미2	빈곤	가족갈등	공격대처	적극대처	지지추구	소극회피		
문제 행동	a																
	b	.64***															
	c	.47***	.37***														
	d	.59***	.41***	.76***													
학교 적응																	
더미 학년																	
성적	더미1	-.10**	-.11***	-.07*	-.08*	.09**	.08**										
	더미2	.13***	.16***	.15***	.14***	-.33***	-.25***	-.65***									
스트레스	빈곤	.26***	.32***	.20***	.25***	-.12***	-.09**	-.12***	.19***								
	갈등	.38***	.40***	.27***	.35***	-.24***	-.16***	-.08**	.17***	.41***							
대처방식	공격	.42***	.32***	.19***	.25***	-.17***	-.06	-.05	.01	.06*	.13***						
	적극	-.03	-.05	-.06	-.04	.22***	.06	-.01	-.18***	-.05	-.09**	.17***					
	지지	.01	.01	-.09**	-.05	.19***	.07*	-.01	-.16***	-.02	-.03	.13***	.58***				
	소극	.32***	.26***	.36***	.44***	-.12***	-.08**	-.08*	.06	.15***	.23***	.37***	.25***	.28***			
평균	1.53	1.27	1.55	1.57	2.67	.51	.43	.36	.27	.53	1.95	2.29	1.83	1.80			
표준편차	.28	.22	.39	.37	.49	.50	.49	.48	.46	.47	.62	.66	.55	.58			

*** p<.001, ** p<.01, * p<.05
a=공격성, b=비행, c=위축, d=불안·우울
더미변수: 학년(중학생=0), 성적(상위권=0)

〈표 4〉와 〈표 5〉는 아동의 적응에 대한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아동의 네 가지 대처방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떠한지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 경제적 곤란,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남아의 적응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R ²	Δ R ²	F	
외현화 문제 행동	공격성	상수	1.19	.05	24.32***	.242	.235	36.80***	
		빈곤스트레스	.07	.02	.13				3.25**
		가족갈등 스트레스	.14	.02	.23				5.73***
		공격대처	.13	.02	.30				7.60***
		적극대처	-.04	.01	-.10				-2.60***
		소극회피	.04	.02	.08				2.08*
	비행	상수	1.12	.04	27.16***	.221	.213	27.21***	
		더미학년	-.04	.02	-.08				-2.21*
		빈곤스트레스	.08	.02	.19				4.71***
		가족갈등 스트레스	.10	.02	.20				4.86***
		공격대처	.07	.01	.20				5.06***
		적극대처	-.04	.01	-.13				-3.34**
내재화 문제 행동	위축	상수	1.15	.07	17.37***	.177	.170	24.87***	
		빈곤스트레스	.13	.03	.16				4.00***
		가족갈등 스트레스	.10	.04	.12				2.85**
		공격대처	.06	.03	.10				2.50*
		지지추구	-.09	.03	-.14				-3.39**
		소극회피	.19	.03	.27				6.20***
	불안/ 우울	상수	1.15	.06	19.03***	.242	.236	36.87***	
		빈곤스트레스	.11	.03	.15				3.83***
		가족갈등 스트레스	.15	.03	.19				4.79***
		공격대처	.06	.02	.11				2.76**
		지지추구	-.10	.03	-.15				-3.96***
		소극회피	.20	.03	.31				7.33***
학교 적응	상수	2.49	.08	31.56***	.495	.490	112.82***		
	더미학년	.53	.03	.55				17.87***	
	더미1	-.12	.04	-.12				-3.05**	
	더미2	-.23	.04	-.23				-5.48***	
	공격대처	-.14	.02	-.18				-5.84***	
	적극대처	.13	.02	.19				5.96***	

*** p<.001, ** p<.01, * p<.05

더미변수: 학년(중학생=0), 성적(상위권=0)

<표 5> 경제적 곤란,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여아의 적응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R ²	ΔR^2	F	
외현화 문제 행동	공격성	상수	.97	.05	20.25***	.417	.410	58.85***	
		더미학년	.07	.02	.13				3.51***
		더미(성적)2	.07	.02	.12				3.25**
		가족갈등 스트레스	.18	.02	.30				7.98***
		공격대처	.16	.02	.36				9.47***
		적극대처	-.04	.02	-.09				-2.51*
	비행	상수	.88	.03	27.78***	.344	.338	51.86***	
		더미(성적)2	.05	.01	.10				2.69**
		빈곤스트레스	.07	.02	.14				3.23**
		가족갈등 스트레스	.13	.02	.27				6.28***
		공격대처	.10	.01	.29				7.18***
		소극회피	.04	.01	.12				2.87**
내재화 문제 행동	위축	상수	1.28	.07	19.24***	.279	.273	47.90***	
		더미(성적)2	.08	.03	.10				2.48*
		가족갈등 스트레스	.15	.03	.18				4.55***
		지지추구	-.16	.03	-.22				-5.56***
		소극회피	.27	.03	.42				10.37***
		상수	1.09	.06	18.37***				.384
	더미학년	.08	.03	.11	3.07**				
	가족갈등 스트레스	.22	.03	.29	7.48***				
	지지추구	-.12	.03	-.17	-4.65***				
	소극회피	.31	.02	.50	13.44***				
	상수	2.53	.08	30.16***	.548	.541	85.13***		
	더미학년	.62	.03	.62				19.46***	
더미(성적)1	-.11	.04	-.11	-2.52*					
더미(성적)2	-.20	.05	-.20	-4.50***					
가족갈등 스트레스	-.09	.04	-.09	-2.61**					
공격대처	-.08	.03	-.11	-3.13**					
적극대처	.12	.03	.16	4.89***					
소극회피	-.07	.03	-.08	-2.39*					

*** p<.001, ** p<.01, * p<.05

더미변수: 학년(중학생=0), 성적(상위권=0)

전체적으로 보아 여아의 적응이 남아보다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의해 더 잘 설명되었다. 적응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학교적응의 설명력이 남녀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남 49.5%, 여 54.8%) 다음으로 공격성(남 24.2%, 여 41.7%), 불안·우울(남 24.2%, 여 38.4%), 비행(남 24.2%, 여 34.4%)의 순이며 위축이 남녀 모두에서 가장 설명력이 낮았다(남17.7% 여 27.9%). 학교적응은 남녀 모두 학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으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높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남아의 공격성은 공격적 대처방식-가족갈등 스트레스-빈곤스트레스-적극적 대처방식-소극적 회피 대처방식의 순으로, 여아의 문제행동은 공격적 대처-가족갈등 스트레스,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성적-학년 적극적 대처방식의 순으로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지지 추구형을 제외한 세 가지 대처방식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특히 부정적 성격이 강한 대처방식인 공격적 대처방식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갈등의 영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이라는 문제행동이 빈곤감이나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과 같은 정태적인 요인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성격이 강한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문제해결적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방식과는 부의 관계에 있는 것도 일관성 있는 설명이 된다. 비행은 남아와 여아 모두 공격적 대처방식-가족갈등스트레스-빈곤스트레스 등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어 공격성과 유사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여아 모두의 비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내재화 문제행동으로서 위축은 남·여아 모두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남이는 빈곤스트레스→지지추구 대처방식→가족갈등 스트레스의 순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지지추구 대처방식→가족갈등 스트레스→성적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문제행동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생산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위축의 문제가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불안·우울은 남아의 경우에는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가족갈등스트레스→지지추구 대처방식→빈곤스트레스의 순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소극적 회피-가족갈등 스트레스→지지추구 대처방식→학년의 순으로 영향력이 낮아졌다.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남녀간 차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아의 경우 네 가지 문제행동 모두에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빈곤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비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문제행동은 오히려 학년과 성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고, 성적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았다.

3) 빈곤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성에 따라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빈곤과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아동의 문제행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동의 성에 따라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이 시기의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발현정도가 성(gender)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아동의 성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호작용효과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 중 비행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남아와 여아로 구분해서 분석할 결과 다양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1)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와 남아의 적응

남아의 경우 모든 적응행동이 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우선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성의 경우 스트레스는 공통적으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족갈등과 공격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과 가족갈등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및 빈곤감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공격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가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공격성이 약간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또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가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공격성이 높아지며(그림 2),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그림 3).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가 적게 하는 남아보다 가족갈등이 높아질 경우 공격성이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지 추구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남아들로 하여금 문제를 드러내어 친구들과 의논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가 그렇지 않은 남아에 비해 빈곤감을 높게 지각하게 되면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은 지지추구 대처방식이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제공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을 때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들은 원하는 만큼의 지지추구가 차단되었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그 좌절감을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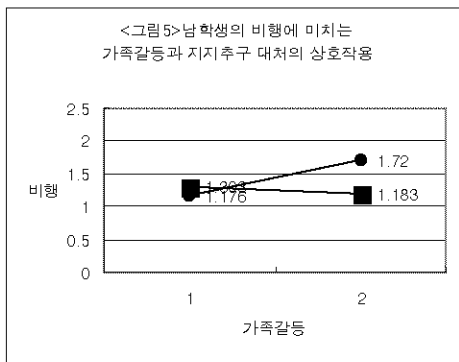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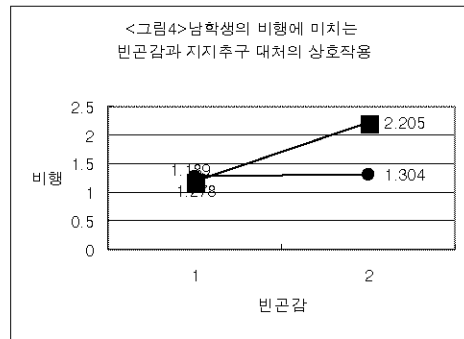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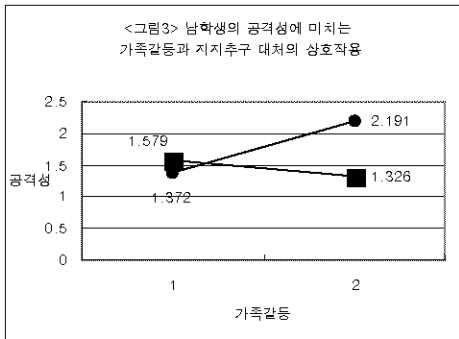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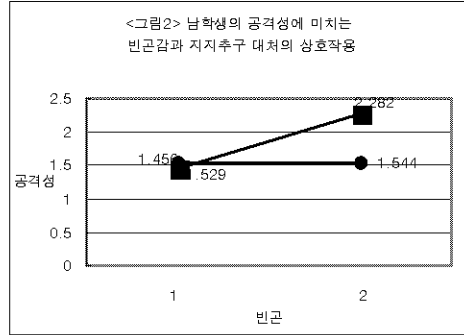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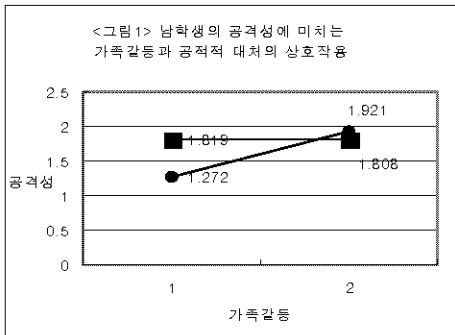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지지추구 대처방식이 빈곤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 양자와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지추구 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은 서로 반대여서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가 그렇지 않은 동료들보다 빈곤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는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지만(그림 4)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비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이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다른 한편이 빈곤스트레스이면 지지추구 대처방식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가족갈등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6〉 빈곤과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와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R ²	ΔR^2	F	
외현 화 문제 행동	공 격 성	(상수)	1.53	.01		152.45***			
		빈곤스트레스	.08	.02	.14	3.56***			
		가족갈등스트레스	.16	.02	.26	6.70***	.238	.233	47.16***
		공격적대처	.14	.02	.31	8.57***			
		가족갈등스트레스와 공격적대처 상호작용	-.08	.03	-.08	-2.34*			
	공 격 성	(상수)	1.53	.01		148.39***			
		빈곤스트레스	.08	.02	.13	3.32**			
		가족갈등스트레스	.19	.02	.31	7.58***	.155	.150	27.73***
		빈곤스트레스와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09	.05	.08	1.97*			
		가족갈등과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13	.04	-.14	-3.48**			
	비 행	(상수)	1.28	.01		153.30***			
		빈곤스트레스	.10	.02	.21	5.16***			
		가족갈등스트레스	.13	.02	.27	6.75***	.167	.162	30.35***
		빈곤스트레스와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11	.04	.12	2.98**			
		가족갈등스트레스와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08	.03	-.10	-2.63**			

대처방식 고 □

대처방식 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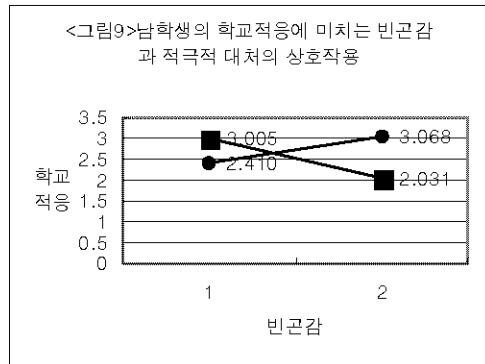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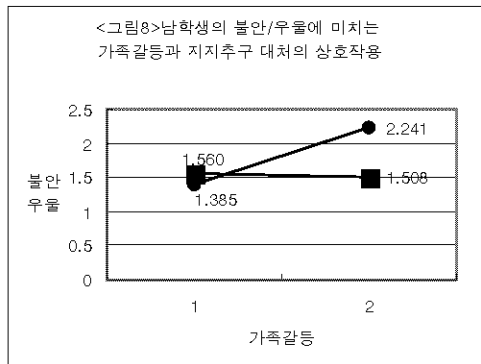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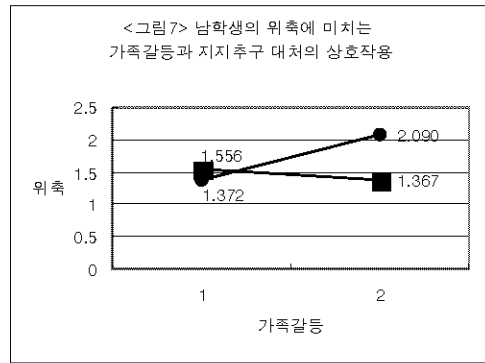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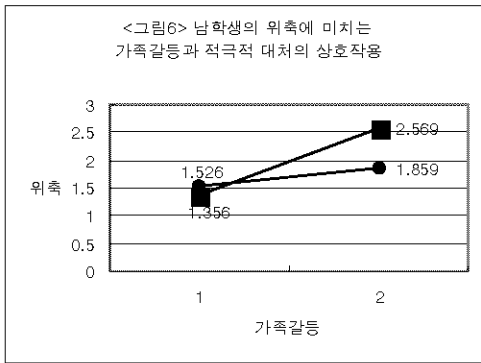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아의 내재화 문제의 설명에도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7), 먼저 위축에는 가족갈등 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그림 6), 가족갈등과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그림 7)이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갈등과 빈곤감에 이어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는 가족갈등이 높아질 경우 위축이 오히려 증가하고,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갈등이 높아질수록 위축행동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남아의 불안 우울도 마찬가지로여서 지지 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은 가족갈등이 높아지더라도 불안·우울의 문제를 덜 보인

다는 것이다(그림 8).

반면 학교적응은 설명력은 낮았으나 빈곤 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방식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표 7). 다시 말해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아일수록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도 학교적응의 문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또 학교적응은 문제행동 4가지와 달리 빈곤 스트레스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빈곤과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R ²	ΔR^2	F	
내재화 문제행동	위축	(상수)	1.59	.02		98.23***			
		가족갈등스트레스	.25	.04	.30	7.10***	.090	.086	25.38***
		가족갈등스트레스와 적극적대처 상호작용	.10	.05	.09	2.12*			
		(상수)	1.52	.02		102.31***			
		빈곤스트레스	.13	.03	.17	4.06***	.100	.095	22.29***
		가족갈등스트레스	.17	.04	.20	4.76***			
	가족갈등스트레스와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11	.05	-.08	-2.13*				
	불안/ 우울	(상수)	1.55	.01		112.80***			
		빈곤스트레스	.12	.03	.16	4.03***	.148	.144	35.02***
		가족갈등스트레스	.22	.03	.28	6.93***			
		가족갈등스트레스와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12	.05	-.10	-2.55*			
		(상수)	2.65	.02		141.35***			
가족갈등스트레스		-.21	.04	-.20	-5.16***	.095	.090	21.06***	
학교적응	적극적대처	.14	.03	.19	4.83***				
	빈곤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 상호작용	-.17	.07	-.10	-2.45*				



(2) 경제적 곤란,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와 여아의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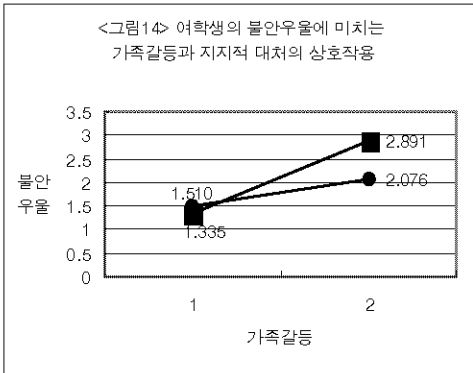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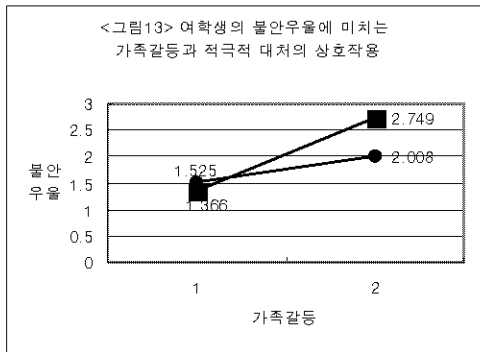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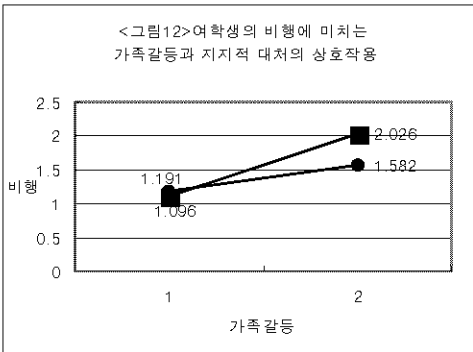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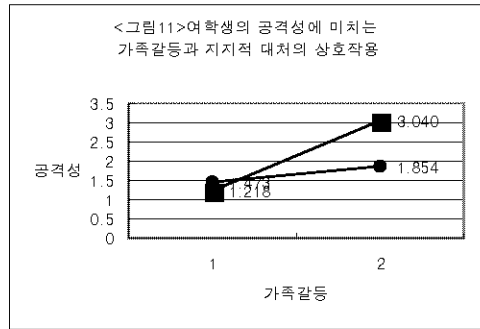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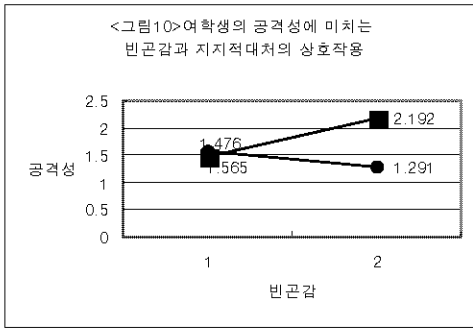
여아의 경우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는 공격성, 비행의 두 가지 외현화 문제행동과 불안/우울의 내재화 문제로 제한되었다(표 8). 공격성에는 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빈곤 스트레스 양자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는데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여아는 빈곤이나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과 11). 비행도 역시 가족갈등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그림 12) 이는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성격이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주요한 지지 제공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지지를 받기 어려워지면 공격성과 비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곤 스트레스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남아에 비해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지지추구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요인이 높아질 때 공격성이나 비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가족갈등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및 가족갈등과 적극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불안/우울이었다. <그림 13>은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여아가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불안/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그림 14>는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여아가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불안/우울 수준이 역시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아의 불안/우울은 대처방식과 상관없이 가족갈등이 높아지면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보다 가족환경에 민감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빈곤과 가족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와 여아의 적응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t	R ²	ΔR^2	F	
외현화 문제 행동	공격성	(상수)	1.54	.01	135.63***	.186	.182	39.25***	
		가족갈등스트레스	.26	.02	.43				10.65***
		가족갈등과 지지추구대처 상호작용	.16	.05	.16				3.37**
		빈곤감과 지지추구 대처 상호작용	.11	.04	.12				2.98***
	비행	(상수)	1.26	.01	147.24***	.235	.231	52.68***	
		빈곤스트레스	.08	.02	.15				3.43**
		가족갈등스트레스	.18	.02	.39				8.96***
		가족갈등과 지지추구대처 상호작용	.06	.03	.08				2.04*
내재화 문제 행동	불안 우울	(상수)	1.61	.02	105.30***	.135	.131	40.11***	
		가족갈등	.29	.03	.38				8.95***
		가족갈등과 적극적대처 상호작용	.10	.04	.10				2.32*
	불안 우울	(상수)	1.61	.02	105.40***	.133	.129	39.45***	
		가족갈등	.28	.03	.36				8.71***
		가족갈등과 지지추구대처 상호작용	.11	.05	.08				2.0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이 인지한 경제적 곤란 및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성에 따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성적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및 학교적응 모두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문제행동이 높고, 학교적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부압박과 성적이 개인의 가치를 말해주게 된 우리사회의 풍토가 반

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성적과 학년이,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성적, 학년과 함께 성(gender)이, 그리고 학교적응에는 학년과 성적 및 부모의 연령이 중요변인으로 등장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아에게서 더 많이 발현된다는 선행연구의 성에 따른 차이는 이 연구에서는 내재화 행동에서만 일치하였다. 부모가 젊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은 젊은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행동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아는 문제행동 네 가지 모두에서 가족갈등과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빈곤스트레스가 비행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공격성, 위축, 불안과 우울에서는 가족갈등스트레스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아아 모두에게서 가족갈등스트레스는 내외면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의 갈등이 많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된다고 보고한 Webster-Stratton(1989)의 주장과 박현선과 김유경(1997)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며, 가족관계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에서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 공격성향이 높아진다고 한 권영옥과 이정덕(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덧붙여 여아의 문제행동에는 남아와 달리 학년과 성적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여아들은 가족관련 특징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특성이 문제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대처방식의 영향은 문제행동이 외현화인지 내재화 문제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과 공격성에는 4가지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방식, 적극적 대처방식 및 소극회피적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공격적 대처방식을 제외한 지지추구 대처방식, 적극적 대처방식 및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기서도 남아아의 차이가 있어 여아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공격적 대처방식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격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이나 사물을 공격하여 좌절을 발산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문제에 의해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유보·수정하고 문제해결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인지행동적 반응으로 불안이나 긴장, 초조, 걱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불안·우울이나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등의 행동 성향인 위축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적응은 남아의 경우 학년이나 성적과 같은 특성 및 대처방식에 의해 설명되는데 초등학생이고 성적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공격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할수록 역시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역시 초등학생이면서 성적이 상위권이고 공격적 대처나 소극회피적 대처를 덜 하면서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하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았는데, 남아와 달리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여아에게 있어서는 내·외면적 적응행동과 학교적응 모두에 가족갈등스트레스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대처방식 유형과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곤란이나 가족갈등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의

적응에 대한 영향을 아동의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아는 외현화 문제행동 두 가지와 내재화 문제행동 두 가지 총 4가지 모두와 학교적응에서, 그리고 여아는 외현화 문제행동 두 가지와 내재화 행동의 우울·불안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대처방식 네 가지 중에서는 공격적 대처방식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두 가지가 빈곤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할 때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지추구 대처방식과 가족갈등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하게도 남아의 경우 가족갈등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는 공격성, 비행, 위축, 불안·우울의 4가지 문제행동에서 모두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 경우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지지추구대처방식이 빈곤스트레스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 남아의 학교적응은 빈곤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문제해결적 접근인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남아들은 빈곤스트레스가 높아져도 학교적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적응의 성격이 강한 학교적응과 개인적, 정서적 성격이 강한 문제행동과는 설명요인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가족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면 공격성이나 비행 및 불안·우울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대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어 가족이 갈등으로 인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지원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여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환경과 아동양육조건에 악화로 인해 다양한 부적응 현상이 아동복지 임상현장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대한 본 연구는 아동복지실천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남·여아 공통으로, 그리고 문제행동 네 가지 모두에서 발견되는 영향변수였다. 특히 남아의 문제행동은 가족갈등 스트레스 뿐 아니라 빈곤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일관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여아는 비행을 제외하고는 빈곤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점은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전략을 개발할 때, 일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아의 경우 가정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직접 연결된 반면, 여아의 경우 가족갈등 스트레스와 자신의 학업성취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적응 중에서 학교적응은 빈곤이나 가족갈등 스트레스보다는 대처방식과 학업성취에 의해 더 잘 설명되고 있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 연구에서 가정한 빈곤스트레스나 가족갈등 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동의 대처방식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격적 대처방식이나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아지며, 공격적 대처방식은 외현화 문제에, 소극적 회피 대처방식은 내재화 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대처방식과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지지추구 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이 성에 따라 특징적인 경향을 보여주어 남아의 경우 가족갈등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부적 효과를 가져오는 등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대개로 한 접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다양한 부적응의 관계는 알려져 있지만 아동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은 찾기 어렵다. 즉 공격적 대처방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대처방식을 교육하며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아동에 대한 영향력을 참고하여 아동의 가족, 교사 등 아동이 기대할 수 있는 지지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생각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처방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우선 아동의 대처방식은 성인의 대처방식이 작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리 작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해결적 대처방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아동의 경우에는 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공격적 대처방식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된다는 점인데 이는 아동이 발달단계의 특징을 볼 때 아직 가족, 친구, 교사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시기라는 점과, 좌절이나 갈등상황에서 성숙한 태도를 갖기보다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미성숙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게 한다. 특히 지지추구 대처방식은 대처방식으로서의 행동적 측면과 사회적 지지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된 것으로 상당부분 대처행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의지하고 있는 지지 제공원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가족이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아동기에 가족갈등이 많으면 지지 추구를 중요한 대처방식으로 채택한 아동의 경우 대처방식이 완충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행동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지 추구 대처방식이 아동의 성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행동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추구하는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성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12-15세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빈곤감과 이로 인한 가족갈등이라는 가족요소에 대한 접근 외에도 아동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에 따라 다른 개입계획이 필요하며 가족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문제행동과 적응과 관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가족유형은 실제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보다 어떤 유형의 가족이든 아동이 실제로 인지하는 가정의 경제적 곤란과 이로 인한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사회복지개입은 아동이 속한 가족유형의 특성에 주목하기보다 그로 인한 파생된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와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유형의 특성은 이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별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성적이 낮으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외현화 문제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취약한 학업성취 능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경은. 2001.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4.
- 김경숙·조옥귀. 2004. “도시와 농어촌 초등학생의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3).
- 김만지. 2002.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3, 76-94.
-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이익섭·박수경. 1998.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6: 54-72.
- 김혜련·최윤정. 2003.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호, 37-70.
- 김혜선. 2004. “조손가족부모의 양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호, 85-118.
- 노충래·허지인. 2003. “알콜중독자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호, 99-134.
- 노혜련·장정순·백은형. 1997.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민하영·유안진.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여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6.
- 이상균. 2003. “알코올 중독자 가정 자녀의 역할유형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아동복지학』 16호, 195-224.
- 이은희.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따른 학교적응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호, 225-250.
- 이춘재. 1998. “빈곤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나영·이정숙. 1999. “아동의 행동문제·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61-71.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관계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호, 145-169.
- 정유미·김득성.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31-45.
- 정원주·윤종희. 1997.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2):185-195.
- 조주영. 2004. 청소년의 위험성행동과 관련된 개인·가족·주변환경 체계요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소희·조성우. 2004.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215-238.
- 최지은·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and C. S. Edelbrock. 1991. "Behavio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
- Alva, S. A. and A. M. Padilla. 1989. *A contextual interaction model of academic invulnerability among Mexican American Students*. Los Angeles, CA:National Council of La Raza.
- Anderson, C. C. and D. L. Hammer. 1993. "Psychosocial outcomes of children of unipolar depressed bipolar meically ill, and normal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1: 448-454.
- Ayers, T. S. 1991.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ment of children's coping:Testing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University of Arizona Stat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Band, E. B. and J. R. Weisz.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arber, D. K. and L. D. Erickson. 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Antecedent in the ecology of social connec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326-354.
- Bates, J. E. 1990.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s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Merrill-Palmer quarterly* 36(2): 193-199.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der, D. and F. Losel. 1997. "Protective and risk effects of peer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ts from multi-problem milieus." *Journal of Adolescence* 20: 661-678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rody, G. H., U. Arias, and F. D. Findham. 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 Causey, D. L. and E. F. Dubow.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 Compas, B. E., J. K. Connor-Smith, H. Saltzman, A. H. Thomsen, and M. E. Wadsworth.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gress, problem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 87-127.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and R. L. Simons. 1994. "Economic stress, corecive family pre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ummings, J. S., D. S. Pellegrini, C. I. Notarius, and E. M. Cummings.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ti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Dadds, M. r. and M. B. Powell. 1991. "The re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mj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n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Davies, P. T. and E. M. Cummings.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unn, J., D. Slomkowski, and L. Beardsal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15-324.
- Elder, G. H. and A. Caspi. 199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5.
- Eyesenck, H. J. and S. B. G. Eyesenck. 1975. *Manual: Eye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an Diego,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ox, N. 1994. "Dynamic cerebral processes underlying emotion regulation." In N.A. Fox(E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rach in child development* 240: 152-166.
- Han, S. Y. 2002.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in Adolescent Delinquency: An Ecological Approach*. University of Wisconsin. Doctoral Dissertation.
- Kliewer, W. 1991. "Coping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competence, a type behavior, monitoring, blunting, and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89-697.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s Publishing Co.
- Ladd G. W., B. J. Kochenderfer, and C. C. Coleman.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University of

-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Long, N., E. Slater, R. Forehand, and R. Faube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Lynch, M. and D. Cicchetti.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24-36.
- Margolin, G. 1998.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In P. Trickett and C. Schellenbach(Eds.),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amily and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Loyd V. C., T. E. Jayaratne, R. Ceballo, and J. Bprquez.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98.
- Peplau, L. A. and D. Perlman. 1982. "Perspective on loneliness." In L. A. Peplau and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 Roy, P., M. Rutter, and A. Pickles. 2000. "Institutional care: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f pattern of rearing?"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2): 139-149.
- Rutter, M. 1985a.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6: 638-704.
- _____. 1985b.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6: 349-368.
- Sylva, K. 1994. "School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1985a.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135-170.
- Taylor, E., S. Sandberg, G. Thorley, and S. Giles, 1991. *The epidemiology go childhood hyperac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 Tschann, J. M., J. R. Johnston, M. Kline, and J. S. Wallerstein. 1989. "Family process and children's functioning during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31-444.
- Vandell, D. L and J. Ramanan. 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 Psychology* 27(4): 637-643.
- Voydanoff, P. and B. W. Donnelly. 1988. "Economic distress, family coping, and quality of life." In P. Voydanoff and L. C. Majka(Eds.) *Families in economic di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policy*. Beverly Hills. CA: Sage.
- Webster-Stratton, C. 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17-430.
- Weiner, I. B. *Psychological disturbance in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Effects of Economic Strain and Family Conflict on Children's Adjustment :

Focused on Interaction Effects of Children's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Yoon, Hye-M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ived stress of economic strain, resulting family conflic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ir adjustment. Dimensions of children's adjustment studied in this research were problem behaviors (aggression, delinquency, withdrawal and anxiety ·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hildren's stress variables and coping strategies on the adjustment were also explored.

1,115 fifth to eighth graders from Chungbuk regions participated in self-administ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PC 10.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were:

First, the level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indicat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 gender, and their age. Middle schoolers with rather low grade average reported higher level of aggression, delinquency, withdrawal and that of depression/anxiety. Boys tended to be more prone to external problems while girls to internal problems. Second, stresses originated from children's perceived economic strain and family conflicts showed consistent meaningful explanatory power on adjustment. Boys' adjustment was influenced by stress from economic strain and family conflict while girls by family conflict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y among others was the most popularly employed coping strategy of children followed by aggressive coping strategy. In boys' cases, interaction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were significant in all of the adjustment variables, the more frequent the use of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ies, the lower the problem behavior, while interaction effect of family conflict stress and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ies played the opposite significant role in girls' cases. Further research efforts are required.

Research results suggest; when developing a program facilitating children's adjustment, training on stress coping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potent new arena of interest.

Key words: children's adjustment, problem behavior, stress, coping strategies

[접수일 2005. 3. 4. 게재확정일 2005. 5. 20.]